



## 컨설팅학과 이야기

제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2021학년도 2학기 개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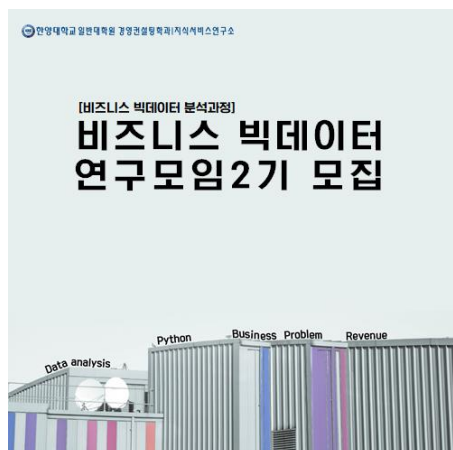


2021년 9월 1일 수요일에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학년도 2학기를 개강하였습니다. 경영컨설팅학과와 주임 교수로 한창희 교수님께서 새로 함께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모든 대학원 수업에 대해 개강 직후 한달간 비대면 방식의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영컨설팅학과에 새로 입학하신 모든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 드리며, 경영컨설팅학과와 지식서비스 연구소가 교수님들과 재학생 학우분들의 새 학기를 응원합니다.

### 비즈니스 빅데이터 연구모임 2기 오리엔테이션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 및 지식서비스연구소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한양대학교 ERICA 경상대학 및 기타 인문계열 단과대학 3,4학년 학부생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빅데이터 분석과정 연구 모임 2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모임은 매주 수요일에 운영되며, 9월 1일 수요일에 9명의 학부생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과 첫 코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모임은 데이터 중심의 문제해결능력 제고 및 이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대회 참가를 주요 운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https://url.kr/5odceh>



(임시) 팀구성			
교수자	김철민	노지성	
1팀	허선우	안강민	김예지
퍼실리테이터	김성철	박현진	이윤표
팀원(장)	김도희	박남경	신주은
	나경호	박정민	김민정

## 최용희 석사(2019년 2월 졸업생) 인터뷰

경영컨설팅학과 19년도 2월 졸업생인 최용희 석사께서 학위 과정을 진행중인 원우분들을 위하여 졸업생 인터뷰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영컨설팅학과 졸업생 최용희입니다. 먼저,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학과에 2017년 9월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입학하여 황승준 교수님 연구실에서 제조업 생산계획 수립 관련 연구를 진행했고, 2019년 2월 졸업했습니다.

### 2. EY한영에서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2019년 6월, EY컨설팅 Business Consulting 부문 GPS(Government & Public Sector)팀에 입사하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GPS팀은 정부 및 대학교 대상으로 가치사슬 전체를 포괄하는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저는 주로 중장기경영전략 및 재무전략 수립,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 인사제도 수립 등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제 소속은 GPS팀이나, 법인 차원에서 컨설턴트가 다양한 산업 및 프로젝트 주제를 경험함으로써 도메인 지식 및 스킬을 축적할 수 있도록 'Pooling제'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반도체, 해운업, 반려동물 등 다양한 마켓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 3.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실무에서 도움이 되었던 수업은 없으셨나요?

황승준 교수님의 '생산운영컨설팅'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고 실무에도 도움 되는 점이 많습니다. 이론의 전체적인 모양새를 Tree로 그리고 뿌리-줄기-잎 순으로 설명해주시는 교수님의 강의방식도 그렇고, Decision tree, 프로세스 흐름도, 병목, 그 밖에 수요와 공급의 일치를 이루기 위한 노력 등 강의 콘텐츠도 실무 수행 시 기틀이 되는 포인트가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논리적으로 수치를 통해 누군가를 설득하는 방법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4. 학위과정을 마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관련하여 원우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

제가 직접 경험한 범위 내에서는, 학사졸업 후 바로 석사과정으로 입학하신 풀타임 분들께 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위과정 중 Career Path에 대한 확신이 없던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다. 연구주제를 정하는 것도 큰 어려움 중 하나였으나, 이 또한 졸업 후 제 모습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최용희 석사(2019년 2월 졸업생) 인터뷰

석사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으로 연구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산업계 진출부터 해서 Real world business는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궁금증, 갈증부터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다 '어떤 Business?', '어떤 Industry?', '컨설팅업이 나와 맞는가?' 등 원초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현직 선배님들의 조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저의 네트워크, 지인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일면식이 없는 분들께도 Cold message를 보내 찾아뵙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 Career path를 구체화할 수 있었으며, 컨설팅사 인턴을 통한 직접 경험으로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논문, 학과 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저와 같이 Career path에 대한 고민이 있는 풀타임 석사과정 분들께 현직자 인터뷰와 인턴십을 적극 추천합니다.



## 컨설팅 이야기

제목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리더’라면 알아야 할 밀레니얼 세대 5가지 특징



세대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비슷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면서 유사한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보이는 인구 집단을 의미합니다. Y세대라고도 알려진 밀레니얼세대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출생한 세대로 현재 노동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들은 정보통신기술에 능통하고 대학 진학률이 높습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불황기를 겪으며 전반적으로 고용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밀레니얼세대는 이전 세대인 X세대나 베이비붐세대와는 차별화된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직장 내에서 이전 세대와 가치관이나 업무 스타일, 커뮤니케이션 방식, 학습 등의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지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제 자료를 토대로 이론적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설명하는 연구는 미흡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심리적 계약 이론을 토대로 밀레니얼세대가 직장에서 기대하는 바가 이전 세대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외재적 보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밀레니얼세대가 기업의 공유 가치나 근무 유연성, 직업적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외재적 보상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증 분석 결과 오히려 성과급 같은 외재적 보상을 더욱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더 개인주의적인 특징을 보이므로 집단 성과에 대한 보상보다 개인의 성과에 따른 보상을 선호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다.



### 밀레니얼 세대 Millennials

출생 | 1980년대 초 ~ 2000년대 초

나이 | 22-37세

특징 | 디지털 기기 능동,  
개인주의 성향, 자의식 강함

소비경향 | 낭비 하지 않지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많이 투자함

## 기후금융 체제 전환과 탄소배출권보다 더 강력한 '기후채권' >>>

기후채권은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더불어 기후금융의 양대 축 중 하나로 탄소중립, 지구온난화 방지, 저탄소 경제 이행 등에 필요한 사업에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 수단입니다. 국제기후채권기구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권과 대기업은 2021년 8월 현재 총 1조3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채권을 발행했습니다. 2021년에만 4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채권 발행이 예상될 정도로 최근 기후채권은 글로벌 기후 변화와의 전쟁에서 핵심적인 무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후채권은 탈탄소와 기후변화 대응에 자금을 쓰겠다는 확실한 목적과 약속에 따라 시중보다 낮은 이자율로 발행됩니다. 기업이 투자자(채권 구매자)와 이런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기존에 시장가보다 낮게 책정된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게 설계되는 게 기후채권입니다. 기후채권의 금리는 프로젝트의 '녹색성'으로 인해 낮게 책정됩니다. 석탄의 가격에는 석탄 발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탓에 생기는 생산성 하락과 질병으로 생기는 의료비 증가, 기후변화 악화 등의 경제적 피해가 반영됩니다. 즉 공해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석탄 발전 같은 산업에는 탄소배출의 환경 자본 파괴 가치를 계산하고 이를 가격에 반영해 이자율이 높게 책정된 금융이 공급돼야 합니다. 기후금융 체제 전환에 따라 더 강력해진 기후채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다.



## "되팔 수 있어야 적극적으로 소비, MZ세대에게 리세일은 일상" >>>

중고 거래 시장을 리드하는 주역은 단연 MZ세대입니다. 경제력을 갖추게 된 밀레니얼 세대는 최근 고가 제품의 중고 거래를 주도하고 있으며, Z세대는 정말 소소한 것까지 사고팔며 '숨 쉬듯' 중고 거래를 합니다. 이들은 소유보다 체험을 중시하고, 중고 물품에 새 주인을 찾아주는 것을 지구를 살리는 행동이라 여깁니다. 또 중고로 되팔 수 있는 제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합니다. Z세대까지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되면 소비 시장은 크게 신제품 시장과 제품 시장으로 양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19 사태는 중고 거래 시장의 성장세에 엔진을 달아줬습니다. 이 기간 전 세대의 중고 거래가 크게 증가했지만 시장을 리드한 건 단연 MZ세대였습니다. 미국 시장 조사 업체 코웨이 지난해 7월 MZ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지난 30일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구매한 적 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18~24세와 25~34세가 모두 33%로 나타났습니다. MZ세대가 중고 거래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가로 구매하기 부담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둘째, 트렌디하고 유니크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셋째, 다양한 제품과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어서. 넷째, 환경친화적 소비라는 점이 좋아서입니다. MZ세대의 소비 철학은 기성세대와 다릅니다. 기성세대와는 차별화된 MZ세대의 리세일 소비 철학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다.



## 연구소 및 대학원 9월 일정

날짜	내용	비고
9/1 (수)	2학기 개강	-
9/1 (수) ~ 9/3 (금)	2학기 신입생 휴학신청	HY-in
9/1 (수) ~ 10/ 28 (목)	석 · 박사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입력	HY-in
9/1 (수) ~ 11/11 (목)	석 · 박사 학위청구논문 신청 접수	HY-in /단과대학 행정팀
9/1 (수) ~ 11/25 (목)	석 · 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 접수 /논문심사위원 변경 신청 접수	HY-in /단과대학 행정팀
9/1 (수) ~ 12/16 (목)	석 · 박사 학위청구논문 제목수정	HY-in
9/3 (금) ~ 9/10 (금)	지도교수 변경 신청	HY-in
9/3 (금) ~ 9월 17일 (금)	2학기 종합시험 접수	HY-in
9/3 (월) ~ 12/17 (금)	석 · 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	-
9/6 (월) ~ 9/7 (화)	2학기 수강신청 정정	HY-in
9/6 (월) ~ 9/10 (금)	석 · 박사 통합과정 수료자 박사학위 포기 신청	HY-in/대학원팀
9/8 (수) ~ 9/14 (화)	2학기 외국어시험 접수	HY-in
9/13 (금) ~ 10/13 (수)	2021학년도 전기 외국인전형 신입학 원서접수	국제처 주관
9/16 (목) ~ 9/20 (월)	2학기 외국어시험 응시료 납부	신청자에 한해 가상계좌로 납부
9/29 (수) ~ 10/13 (수)	2학기 중간 강의평가 기간	-





[End of Document]